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부와 재산은 마술쇼와 같아  
유혹과 속임수 뿐이니  
탐욕의 매듭에 묶이지 말라.

어마어마한 재력, 최상의 옷과 맛있는 음식 등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큼 모여 있던 축적된 것들은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언젠가 소진되고 맙니다. 모아 놓은 소유물이나 재산은 언젠간 모두 흩어집니다. 지위나 권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라간 것은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모아서 좋은 목적을 위해 쓴다면 말이죠. 빈곤을 줄이기 위해 삼보에 공양 올리거나 승가를 후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보시로 덕을 입는 자들은 자신이 받은 보시를 욕심없이 오직 수행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부’라는 것은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보시한 공덕 또한 어떤 실재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가 있고, 그 한 측면으로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한 번 탐욕에 사로잡히면, 두 손이 묶이고 마음은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베푸는 능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베푸는 행위마저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사는 아귀계에 환생할 조건을 만듭니다.

사랑과 비집착은 진정한 보시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관대해야 하며, 어려움이 처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의 완공으로 군포교는 양적인 성장에 정점을 찍었다”며 “이제 질적인 포교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나눔·전통·쇄신’ 조계종 올해 키워드

총무원장 자승 스님, 16일 신년기자회견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을 통해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쇄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입기를 마무리하는 조계종 33대 집행부가 불교의 대사회적 참여와 종단 쇄신을 올해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반영해 올해 종단 서원도 ‘세상과 함께 하며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먼저 자승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주지 인사사고과제도 도입 △사찰 토지처분금의 목적사업기금 적립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 △해의특별교구 설립 △승가교육제도 전면 개선 △종단외래 한글화 등을 33대 집행부의 성과로 꼽았다.

입기를 마무리하는 올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종단은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는 대승보살의 서원처럼 현재 실천해야 할 일을 찾아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실직자강, 장애인 등 특화 템플스테이 △서울시와 사회대안은행 추진 △사찰예방센터 활동 강화 △노

동자 동사법 회회 봉행, 심리치유센터 설치 △케냐지역에 학교 개설 등을 추진한다.

전통문화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연등회, 전통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불교 전통의례의 한글화 △전통사찰 폐사지 활용방안 연구 등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지나해 발표한 종단 1차 쇄신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점검과 시행을 통해 완성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조

특화 템플스테이, 대안은행

이웃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청규 등 쇄신과제 마무리

종교인 과세는 긍정적 입장

용산·쌍용차 사면 촉구해

자승 스님은 “사찰운영위원회, 사찰 재정 합리화를 위한 카드 사용, 영수증 발급, 전문 종무원 양성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단 쇄신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승가 청규와 선거제도, 호법제도, 승려복지 등 2차 쇄신안이 완성되면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단 기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33대 집행부의 추진 사업들이 당장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불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스님은 “지역사회에 이바지는 불교가 되기 위해 교구행정 활성화와 종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전법을 위한 교구 획정 방안을 중앙총회와 함께 강구할 것”이라며 “주지인사사고과제도 확산, 토지처분금의 신도시 포교 시설 건립 등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용산참사, 쌍용차 관련 구속자 사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다. 중앙총회, 교구본사 등과 협의 거쳐 종단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수행자인 스님들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제로 발생하는 고용 관계가 없다. 보시금을 어떻게 현대 세무 행정과 맞춰갈 지는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산 참사, 쌍용차 구속자 사면에 대해서는 “금년 설에는 이들이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화합과 상생의 기운을 북돋아 주길 바란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도 사회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글=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비구니 파송... 군포교 발전 원년으로”

군종특별교구, 행정 전산화 등 신년계획 밝혀

군종특별교구가 2013년 군포교 질적 향상을 위한 특성화 전략을 전개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월 14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승 자질 강화 및 예비군승 심화 교육 △교구 시스템 전산화 △노후 군사참개보수 불사 △군장병 불자 배가운동 전개 등 새해 주요사업계획을 밝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의 완공으로 군포교는 양적인 성장에 정점을 찍었다”며 “이제 질적인 포교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먼저 군종교구는 업무 전산화와 젊은 군세대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종단 통합행정 프로그램인 ‘가람지기’를 군제에 맞게 개편해 개선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역 군승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명상 상담, 뇌 과학 등을 연간 16명씩 위탁 교육할 예정이다.

현장 포교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법회, 수계와 일선 교육부대의 연계 포교 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족한 군승 자원의 충원을 위해 2014년 비구니 군승 파송을 추진한다. 2012년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군승 파송 협의를 마친 군종교구는 비구니 회로 부터 추천 받은 1~2명의 비구니 군승 후보에 대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그동안 불자와 군에 실망을 준 면이 있다. 군승의 수 보다는 자질과 소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구니 군승 파송에 대해서는 “복장, 두발 등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구에

도 3~4명의 신청자가 접수돼 비구니회로 넘긴 상황”이라며 “2014년 비구니 군승 파송과 자질 향상이 군포교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종교구는 이밖에 군의 협조를 통해 노후 군법당 개보수 불사에 나선다. 전체 450여개 군법당 중 20년 이상의 노후 군법당은 200여개에 달하는 상황. 군종교구는 군법당 표준설계안을 마련해 불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자광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2년 130여명이 투입돼 마련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 회향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올해 7월 입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자광 스님은 “입기동안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다”며 모연에 참여한 사부대중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진각종 올해 예산 159억9천700만원

지난해 보다 1억여 원 증가

진각종이 올 예산을 159억9천7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해명 정사)는 1월 17일 오후 2시 서울 하월곡동 진각문화전승관 4층 회의실에서 제383회 임시총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세부 예산을 보면 통리원 133억7천500만원, 교육원 6억9천100만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억1천100만원이 증가한 159억9천700만원이다.

진각종 올 예산은 통리원장 취임법회 등 행사비를 비롯해 교육예산은 증가했으나 인건비, 비품매입, 봉축행사, 장엄물 제작, 국제교류지원금, 역경출판 등의 예산은 감소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남경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 중·고생 조기유학

###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월 30일

### 5. 문의처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5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

###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 3. 제출기한

- 1월 30일까지

###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 5. 출발일자

- 3월 8일

###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